1 주: 강의소개 및 사르트르 소개

- 강의소개

- 사르트르 소개

2010. 9. 6.

변 광 배

0. 강의 소개

* 강좌 제목 : 한 실존철학자의 초상 - 장 폴 사르트르의 사상과 문학

* 아트 앤 스터디 2010 년 9 월 강좌(8 주)

* 주별 강의계획 및 내용

1 주: 강의소개 및 사르트르 소개:

- 강의소개; - 사르트르는 누구인가

2 주: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 사르트르 이전의 실존주의 계보; -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3 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몇몇 원칙

- 절대자의 부재와 우연성; - 실존과 본질

4 주: 『구토』를 통해서 본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 사물의 나상(裸像)과 '무용한 정열'로서의 인간; - 구원의 문제

5 주: 타자, 시선과 신체 : 「벽」을 중심으로

-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 - '타자는 나와 나 자신을 이어주는 필수불가결한 중개자이다'

6 주: 사르트르의 실존적 정신분석

- 프로이트와의 비교; - 「어느 지도자의 유년 시절」 분석

7 주: 사르트르와 폭력

- 사르트르의 폭력론; - 「톱니바퀴」를 중심으로

8 주: 사르트르의 도덕론

- 힘의 도덕; - 기부를 통한 도덕

I. 사르트르 소개

I.1. 사르트르의 현주소

* 사르트르의 수용 60 년사 연구 : 1948 년 단편 「벽」이 전창식에 의해 번역되어 『신천지』라는 잡지에 실리는 것을 시작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음;

* 물론 1946 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잡지에 실린 미국, 일본의 단신(短信);

* 그 이후 특히 1960 년-1980 년 중반까지 유행 : 실존주의; 참여문학 등의 개념과 더불어 유행했다 사라짐;

*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수용과 더불어 뒷전으로 물러남;

* 하지만 연구, 정리가 많이 안 된 상태;
* 번역 문제 : cf: 카뮈, 푸코, 들뢰즈 등과 비교;
* 현재 출판사에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번역을 거의 거절하는 상태; ex) 극작품의 번역 시도;
* 우리나라에서 불문학 연구의 침체;
* 연구자들의 숫자 부족과 노력 부족;
* 한국사르트르연구회(GSES: Groupe Coréen d'Etudes Sartriennes)의 결성;
*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고무적인 소식 : 최근 사르트르의 부활 조짐이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음; 타자, 신체, 몸에 대한 논의; 메를로퐁티와의 관계; 들뢰즈의 기여; 『존재와 무』 읽기; 『변증법적 이성비판』의 번역; 『상상력』, 『상상계』 번역; 등;
* 사르트르의 평전 번역 등;
* Cf.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www.sartre.or.kr 를 참고;

I.2. 세계의 연구 동향

* 2005 년이 분기점 : 사르트르의 탄생 100 주년이 되는 해 => 전 세계적으로 30 여 개국에서 학술대회 개최;
* 프랑스의 경우 : GES(사르트르연구회) 주관으로 매년 6 월(사르트르의 생일인 6 월 21 을 전후로 해서 2 일 동안 소르본느 대학에서 정기콜로키움이 개최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소련, 영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
* 각국의 장점:
- 벨기에 : 사르트르의 현상학, 특히 초기현상학(원고 발견과 더불어);
- 미국 : 사르트르의 사회, 정치철학;
- 독일 : 번역과 사르트르의 미학;
- 프랑스 : 사르트르의 미학; 문학에서의 원고 발굴을 통한 텍스트 정리 작업, 이른바 발생론적(génétique) 연구;
- 이탈리아와 영국 : 사르트르의 문학, 특히 연극 쪽에서의 강세;
- 일본 : 사르트르의 유고집인 『도덕을 위한 노트』을 중심으로 한 연구 활발; 다른 철학자들과의 비교 연구;
* 활발한 도서출판(프랑스의 경우) : 2005 년 이후 약 100 여 종의 책이 간행됨;
* 사르트르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들뢰즈(G. Deleuze)와 같은 철학자가 자신의 학창의 진정한 “스승”; “신선한 바람”이었다고 회상함으로써 사르트르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 특히 다른 철학자들과의 비교 연구; 타자, 신체, 전체성, 정신분석, 증여 등의 개념에서는 거의 선구자적 입장;
- 20 세기 불문학 연구 : 프루스트-사르트르-셀린의 순; Internet 접속 회수에서 최상위권;
- 전 세계적으로 약 30 여개 나라에 사르트르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음.

II. 사르트르는 누구?

II.1. 생애

* 4 개의 주요 사건에 주목할 필요 :

* 1905 년 : 장 밥티스트 사르트르(Jean-Baptiste Sartre)와 안느 마리 슈바이쳐(Anne-Marie Schweitzer) 」 사이에서 출생

* 1906 년 : 장 밥티스트의 죽음 :

> "장 밥티스트의 죽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는 족쇄를 차게 되었고, 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말 *Les Mots*』(1964))

* 1917 년 : 어머니의 재혼과 폭력의 발견 : 죠세프 망시(Joseph Mancy); 라 로셸(La Rochelle)로 이주; 여기서 보낸 4 년간 : "인간들의 관계가 폭력 위에 정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불행했던 시기; 파리로의 귀환과 니장(Paul Nizan)과의 만남;

* 1924 : 파리 고등사범학교; 1929 : 교수자격시험 합격(수석)

* 1929 : 보부아르(S. de Beauvoir)와의 만남;

> "내가 만남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의 열정은 밋밋해 보일 정도였다. 그와 비교해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얼마나 미지근한 것이었던가! 나는 글을 쓰지 않고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예외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글을 쓰기 위해서만 살고 있다."(보부아르: 『얌전한 소녀의 회고록 *Mémoires d'une jeune fille rangée*』(1958))
>
> "내 생애 처음으로 그 누군가에 비해 지적으로 뒤진다고 느꼈다."(같은책)

* 1931 : Le Havre(르 아브르)에서 철학교수(Cf. 부빌(Bouville) - 『구토 *La Nausée*』); 1933 : 베를린프랑스연구소(Institut français à Berlin)(cf. Heidegger 와 특히 Husserl 을 공부); 1938 : 『구토』; 1939 : 『벽』(*Le Mur*)

* 1939.9 : 동원: 제 2 차대전의 영향 :

> "내 생애는 전쟁으로 인해 둘로 나뉘어졌다. 내 나이 34 세 때 전쟁이 시작되어 40 세 때가 되어서야 끝났다. 이것은 나의 젊은 시절에서 성년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것이 내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전쟁 전과 전쟁 후."(Sartre, 『상황 10 *Situations, X*』)

* 1945 년 이후 : 참여문학론 주창; 공산주의에 가까워짐;

* 1960 년대 : 구조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퇴조

* 1968 년 이후 : 모택동주의자들과 가까워짐; 1968 년 5 월 혁명으로 반짝;

* 1980 년 파리에서 사망;

* 특징 : 부정의 화신; "Oui, mais";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철저한 증오; 그 역시 이 계급으로부터 증오를 받음;

* 지금도 프랑스 학계에서는 소르본느 대학을 중심으로 사르트르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고 함;

II.2. 주요 저서

* 철학 : 『상상력』; 『상상계』; 『감동론 소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존재와 무 - 현상학적 존재론 시론*(L'Etre et le néant : Essai d'ontologie phénoménologique*)』(1943); 『변증법적 이성비판』(*Critique de la raison dialectique*, 1960);
* 소설 : 『구토』; 『자유의 길』(*Les Chemins de la liberté*, 1948), 3 vols, 『말』(1964)-노벨문학상; 거절;
* 문학비평 및 이론 : 『보들레르 *Baudelaire*』; 『성 주네 : 희극 배우와 순교자 *Saint Genet : Comédien et martyr*』; 『집안의 천치 *L'Idiot de la famille*』; 『말라르메 *Mallarmé*』; 참여문학론 : 『상황 II *Situations II*』(1948);
* 극작품 : 『바리오나 *Bariona*』; 『닫힌 방 *Huis clos*』; 『파리떼 *Les Mouches*』; 『무덤 없는 주검 *Morts sans sépulture*』; 『공손한 창부 *La Putain respecteuse*』; 『더러운 손 *Les Mains sales*』; 『악마와 선한 신 *Le diable et le Bon Dieu*』; ; 『네크라소프 *Nekrassov*』; 『알토나의 유폐자들 *Les Séquestrés d'Altona*』; 『킨 *Kean*』, 『트로이의 여자들 *Les Troyennes*』.

- Cf. 총 : 10,000 여 쪽 : 미간행 원고는 20, 000 쪽에 해당한다고 함;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

II.3. 사르트르 이해를 위한 몇 가지 핵심 코드

*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 현상학자 - 거대담론을 주장한 마지막 철학자 - 실존적 정신분석 - 마르크스주의자
* 인간중심주의자; 자유("인간의 자유는 파도처럼 영원히 다시 시작한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를 받았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다.");
* 책임; 참여(engagement)문학; 프로이트; 마르크스; 인간을 이해하려는 정열; 보부아르; 『존재와 무』/『변증법적 이성비판』; 인식론적 단절;

III. 『존재와 무』(EN)의 목표와 방법

III.1. EN 의 목표 (부제 : 「현상학적 존재론 시론」)

* 철학의 출발점 :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사르트르는 칸트, 쉘링, 헤겔, 하이데거를 거쳐 적어도 라이프니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 즉 왜 이 세계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다시 발견한다."(H. Arendt : 『정신의 삶 *La Vie de l'esprit*』, t. .I : 『사유』)

* 존재론

- 가정 : 신의 부재

> "도스토예프스키는, 만약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허용될 것이다, 라고 썼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출발점이다.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 결과로서 사람은 자신의 내부나 외부에 의지할

곳이 없어 고독하게 되어 버린다. 아무런 핑계도 찾을 수 없다. 만약에 실제로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면 사람은 절대로 일정하고 고정된 인간성을 미루어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 우연성 또는 잉여존재(l'être 'de trop') :

"본질적인 것, 그것은 우연성이다. 원래 존재는 필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존재란 단순히 거기에 있다는 것뿐이다.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서 만나도록 자신을 내맡긴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연역할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 다만 그들은 필연적이며 지기원인아 됨직한 것을 발명함으로써 이 우연성을 극복하려고 해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필연적 존재도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우연성은 가장이나 지워버릴 수 있는 외관이 아니라 절대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무상인 것이다. 모든 것이 무상이다. 이 공원, 이 도시, 그리고 나 자신도 무상이다.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때가 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모든 것이 표류하게 된다. 요전 날 저녁 역부회관에서처럼 말이다. 구토이다. 그 더러운 자식들이 그들의 권리를 휘둘러 숨겨 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가엾은 거짓이랴. 아무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완전히 무상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잉여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내부에서 잉여이다. 즉, 부정형이고 애매하고 한심하다." (『구토』)

III.2. EN 의 방법

* 후설의 현상학;

"파리에 들른 아롱(Aron)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를 만나서 그들에게 그가 알게 된 최근의 철학적 성과들을 설명했다. (.....) 아롱이 사르트르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에게 현상학적 접근을 설명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이 유리컵, 이 탁자 (...) 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르트르가 이 접근 방법에 친숙함을 느끼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었다. 그는 당장 3 년 전에 알캉 출판사에서 간행된 레비나스의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이론』을 구입하였다. (.....) 사르트르는 이렇게 해서 후설을 만나게 되었으며 철학 분야에서 1939 년까지 후설만을 파고들었다."(아니 코엔 솔랄(Annie-Cohen Solal) : 『사르트르 *Sartre*』)

* 하이데거/ 헤겔의 개념 수용: 대자/즉자; 존재론; 현존재; 인간적 현실 등:

III.3. 존재의 세 영역

* 존재 = 즉자존재(l'être-en-soi) + 대자존재(l'être-pour-soi) + 대타존재(l'être-pour-autrui)
* 즉자 = 사물들의 존재 방식; 대자 : 인간의 존재 방식
* 의식의 지향성 :"모든 의식은 그 무엇인가에 관한 의식이다"

*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

> “여기에 내가 소개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더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가령 신이 없다면 적어도 본질보다도 앞서는 하나의 존재, 또한 어떠한 개념으로도 정의되기 전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게 된다고 선언하며, 또한 그 존재는 인간이거나 혹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인간 실재라고 선언한다. 여기에서 본질보다 존재가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은 우선 먼저 있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그 다음에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존주의가 생각하는 인간, 만약 그 인간이 정의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인간이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무엇이 되며, 그래서 그는 스스로 창조해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성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상상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만 그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인간은 존재한 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제 1 원리이다. 이것이 또한 사람들이 주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 자유 :

> "다른 한편으로,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치나 질서를 우리 앞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명백한 가치의 영역 속에서 정당성이나 변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들은 변명의 여지 없이 고독하게 있다. 나는 그것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선고받았다고 표현하고 싶다. 선고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일단 세계 속에 내던져졌으므로 인간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같은 책)

* 인간= 신이고자 하는 욕구 = 즉자-대자의 결합(fusion de l'en-soi-pour-soi)
* 인간 = “무용한 정열(passion inutile)”

III.4. 대타존재

* 대타존재의 필요성:

> “나에 관한 어떤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타자를 거쳐야만 한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 타자의 정의 : “타자는 원칙상 나를 바라보는 자”(EN); 시선;

* 타자의 이중의 상반된 지위
- 나의 가장 강한 적 : 타자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객체화시키는 존재; 따라서 나와 타자의 관계는 갈등; Mitsein 이 아니라 갈등 : "지옥, 그것은 타인이다"(『닫힌 방』
- 나와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존재 : 누군가가 나를 바라본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신체의 문제
- 신 = 절대적이고 영원한 시선.

IV. 『변증법적 이성비판』(CRD)의 목표와 방법

* 사르트르의 후기 사상
* 목표 : "구조적, 역사적인 인간학"의 정립 = 마르크스 + 프로이트;
* EN 에서 결여되었던 집단의 차원, 사회, 역사적 차원을 고려.
* 인간 = 실천의 주체; 복수태의 인간들이 이루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é); 전체성의 파악을 겨냥;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cf. Hegel 의 기획과 마르크스의 기획; 헤겔 + 키에르케고르; 마르크스 + 프로이트;
* 물질세계 = 희소성(rareté)과 다수의 인간들(pluralité des hommes)
* 인간의 역사 = 희소성에 대한 투쟁의 역사;
* 인간들 사이의 관계 = 투쟁과 갈등의 관계
* 또한 희소성에 대항해 투쟁하면서 집단을 이룸
* "실천적-타성태(pratico-inerte)"의 개념
* 집렬체(계열체; série) -> 융화집단(groupe en fusion) ->서약집단(groupe assermenté) -> 조직화된 집단(groupe organisé) ->제도화된 집단(groupe institutionnalisé)
* 폭력에 의해 지배됨

V. 마치면서

- 명령법(도덕)이 아니라 직설법; cf. 유고작 『도덕을 위한 노트』;
- EN 과 CRD 사이의 인식론적 단절의 문제
- Sartre 의 현대성 : 구조주의와의 논쟁; 레비스트로스, 푸코; 들뢰즈; 니체; 베르그송; 라캉, 바타이유, 프로이트, 마르크스, 헤겔, 메를로퐁티, 레비나스, 바디우, 등 etc.; 주체, 신체, 타자, 역사의 인식 등의 문제.
- 탄생 100 주년 학술행사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르트르의 재해석; 사르트르의 현대성 등.

* 참고문헌(일부)

안니 코엔 솔랄, 『사르트르』, 우종길 역, 창, 3 권.
사르트르, 『존재와 무』, 손우성 역, 삼성출판사, 세계사상전집 39-40, 1982.
----, 『문학이란 무엇인가』, 정명환 역, 민음사, 1998.
----, 『구토』 외, 김희영 역, 주우, 주우세계문학 48, 1982.
----, 『말』, 김붕구 · 정명환 역, 민예사, 민예 프랑스문학, 1994.
김치수 · 김현 편,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 문학과지성사, 현대의 문학이론 14, 1991.

김화영 편, 『사르트르』, 고대출판부, 1990.
레비(베르나르 앙리_, 『사르트르 평전』, 을유문화사, 변광배 옮김.
박정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상명대출판부.
박홍규, 『카페의 아나키스트 사르트르 : 자유를 위해 반항하라』, 열린시선, 2008.
변광배, 『장 폴 사르트르 - 시선과 타자』, 살림, 살림지식총서 97, 2004.
----, 『존재와 무 - 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설』, 살림, 2005.
신오현, 『자유와 비극 - 사르트르의 인간존재론』, 문학과지성사, 1980.
정명환, 『문학을 찾아서』, 민음사, 1994.
한국사르트르학회편, 『사르트르와 20 세기』, 문학과지성사, 현대의 지성 105, 1999.